

<불멸의 연인>

(1994)

감독 : 버너드 로즈

주연 : 개리 올드먼



베토벤 유물에서 나온 3통의 편지

7월 6일 아침, 저녁과 7일 아침 테플리츠에서 쓴
3통의 편지 → **안톤 신틀러**가 보관. 연도, 수신인 없었다.
연도는 모든 정황 검토, 1812년으로 결론. 그러나...

수신인은? 미궁에 빠졌다!

*“내 천사, 내 모든 것,
나의 진정한 자신”*

*“우리가 완전히 결합한다면,
우리의 마음이 항상
바로 곁에 있다면...”*



프라하에서 만나 칼스바트에 머문 사람

???

편지 부치지 않은 이유는?

- ◆ 7월 6일 아침, 우편마차 이미 출발
- ◆ “7월 9일에 부치면 11일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”

→ *그러나 안 부쳤다. 7월 7일(화) 이후 두 사람 만났고, 부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닐까?*

줄리에타 기차르디 (1782~1856)

안톤 신틀러, 1840년 전기
“*줄리에타가 불멸의 연인*”

1801 피아노 레슨

1802 <월광> 소나타 헌정

1803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
나폴리로 이주, Bye!!



테레제 폰 브룬스빅 (1775~1861)

1779 전기 작가 **세이어** 주장

1799 동생 요제피네와 함께
피아노 레슨, 하루
4시간, 16일간 무료!

1809 피아노소나타 F#장조
<테레제를 위하여>

“불멸의 연인은 내가 아니라
동생 요제피네!”



요제피네 폰 브룬스빅 (1779~1821)

1799 언니 테레제와 함께
피아노 레슨

1804 남편 다임 백작 사망,
네 자녀의 어머니.
다시 피아노 레슨.

1806 *“저를 너무 많이 사랑
하지 말아 주세요.”*

1810 슈타켈베르크와 재혼



요제피네 폰 브룬스빅 (1779~1821)

1812 일기 중단.
그해 여름 빈에 있었고
결혼 생활 별탈 없었다.
→ '불멸의 연인' **아니다!**

1821 궁핍하게 사망.

"15통의 편지가 불멸의
연인이란 증거" → **확증 없음**

<안단테 파보리>

→ '요제피네의 주제'



안나 마리 에르되디(1779~1837)

(영화 등장)

1803 베토벤과 친해져 점점 더 가까운 사이 됨.
뛰어난 피아니스트.

1808 같은 집에 거주
<유령> 트리오 Op.70 헌정

1815 첼로 소나타 Op. 102 헌정

베토벤 편지,

“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...” (?) 아마도 우정!



안토니 브렌타노(1780~1869)

1809~ 1812

베토벤의 친구였던 남편
프란츠와 함께 빈에 머무름.
네 자녀와 힘든 상황.

1812 여름 프라하, 칼스바트 방문,
베토벤 만났을 개연성

“안토니는 베토벤을 진심으로
사랑한 유일한 여성이었다. 베토벤은
프란츠와 우정을 소중히 간직했다.”

- 앤 베이커 <베토벤 평전>



안토니 브렌타노(1780~1869)

<연인에게>

“오, 그대 고요한 눈빛,
사랑스런 모습,
그대 뺨에 흐른 눈물이
땅을 적시기 전에
내가 들이마셔야겠네.
그대의 고통은 나의 것.”

메너드 솔로몬, 1972년 논문에서
“**브렌타노가 분명하다**” 결론
→ 수수께끼 풀렸을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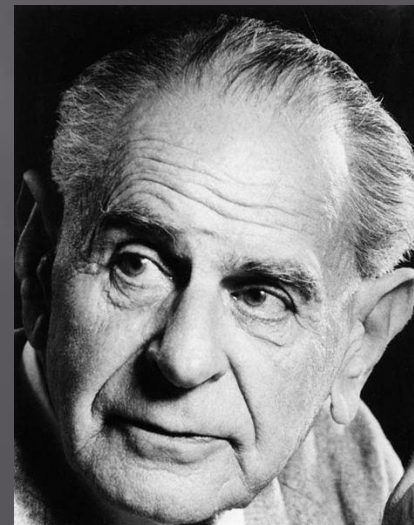
안토니 브렌타노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

♪ 신뢰하는 친구 프란츠의 아내 안토니와 사랑하는 건 베토벤의 도덕률에 맞지 않았을 것.

♪ 프란츠와 안토니의 관계는 솔로몬이 추측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. “최고의 남편”이란 표현.

→ 안토니가 맞다고 주장한 메너드 솔로몬,
“**잠정적인 가정일 뿐**”

철학자 칼 포퍼 <과학적 발견의 논리>,
“**검증도 반증도 안 된 가설**”



1812년 8월의 만남,

♪ <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>

1812 일기

“너, 불쌍한 베토벤이여,
너에게 행복은 따로
주어지지 않는다.
너는 오로지 혼자 모든 것을
창조해야만 한다.
너의 예술 안에서만 살아라.
이것만이 너의 유일한
실존이다.”



“사자는 단추를 풀어헤쳤다” - 로맹 롤랑

“결혼 안 해서 다행” “5년 전 그 여성을 여전히 사랑”

1817년 자나타시오 가족에게

“제 경험에 따르면,
부부 중 어느 한쪽이
결혼을 후회하지 않는 경우를
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
이전에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
처녀들 중 어느 누구도
제 아내가 되지 않은 게
기쁘기 그지없습니다.”



1817년 파니 자나타시오의 일기

“베토벤은 5년 전 만난 한 여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.”

베토벤의 사랑

“늘 누군가 짝사랑했고, 서로 사랑하는 경우도
신분의 벽에 막혀서 이뤄지지 않았다. 사랑과 예술?
언제나 예술을 선택. 프란츠 & 안토니 브렌타노와는?
열정을 우정으로 승화”

<아델라이데> Op.46

“오, 언젠가 내 무덤에선
재가 된 내 심장의 꽃이
피어날 거야.
보랏빛 꽃잎 하나하나에
네 이름이 또렷이 빛나네,
아델라이데!”



그밖에 검토된 사람?

베틀나 브렌타노 : 괴테와 베토벤 소개해 줌

테레제 말파티 : 1810년 청혼, 거절당함

<엘리제를 위하여>

베토벤 서랍에서 발견된 미니어처, 누구?

불멸의 연인,
그냥 미스터리로
남겨 두는 게 낫다(?)
학자들 “모른다”



영화 <불멸의 연인> 스토리는?

'유산 상속', 주인공은 누구일까?
신틀러가 '불멸의 연인'을 찾아 나선다.
줄리에타 기차르디? 안나 마리 에르되디?
둘 다 아니다!!

결론은? **요한나 라이스!!**

죽은 동생 카스파르의 아내!!

동생 몰래 제수씨와 불륜, 아이까지 (?)

→ "소설을 쓰는 건 자유"

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!



베토벤, "What? 암만 영화라도 너무 심한거 아냐?"

감독 버너드 로즈의 대~단한 상상력!

조카 칼에 대한 베토벤의 광적인 집착 →
“친아들 아닐까?” (동생 카스파르 1814년 사망)
칼의 양육권 놓고 베토벤과 요한나 법정싸움 →
“원수로 돌변한 연인 사이 아닐까?”

현악사중주곡 악보에 베토벤이 써 넣은 말
“그래야만 했을까? 그래야만 했어!”

→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베토벤이 회상하는 걸로 해석
베토벤의 마지막 한 마디 “이제 희극은 끝났다”
→ 요한나와 화해하는 걸로 해석

→ 감독의 상상력, 개연성 떨어지지만 **정합성 있다!**

영화 <불멸의 연인>, 뛰어난 연주자들 참여한 음악영화!



지휘 게오르그 솔티



바이올린 기돈 크레머



첼로 요요마



피아노 머레이 페라이아

<불멸의 연인>

(1994)

감독 : 버너드 로즈

주연 : 개리 올드먼

